aT, K-푸드로 중앙아 신시장부터 방콕 입맛 사로잡았다

카자흐 '알마티 국제식품박람회'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0개사와
1430만弗 규모 수출상담 성과
인삼 품목관, 신선과일 홍보 행사

태국 방콕서 'K-스트리트 팝업'
고구마·한강라면 등 시식·체험



'2026 알마티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



태국 방콕 쇼핑몰에 조성된 'K-스트리트푸드 팝업스토어'. /aT

중앙아시아 시장 등 K-푸드의 블루오션 진출 확대가 시도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의 경우, 중동 지역 바이어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다국적 홍보 효과도 갖는다. K-푸드가 이미 널리 확산해 있는 동남아에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 등 K-드라마와 연계한 새 식품군 투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13일 사흘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타켄트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2026 알마티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aT와 국내 참가업체들은 14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알마티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자 중앙아시아 경제·물류 거점 도시다. 박람회 역시 중앙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을 비롯해 중동 권역 바이어들이 집결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은 CIS 지역 내 러시아를 잇는 제2의 경제국이자 다량의 지하자원으로 인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형 편의점 유통채널 확대로 K-푸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블루오션이다.

aT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20개사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구성했다. 라면 등 면류를 비롯해 차류, 과자류, 음료류, 쌀 가공식품, 인삼류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신규 거래처 발굴에 나섰다.

특히 한국 인삼의 중앙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인삼 품목관을 운영하고, 한국산 신선과일 시식·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현장 상담에 참여한 현지 유통바이어 올가 씨는 "K-푸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라면 카페 등 K-푸드 전문 유통채널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냉동식품과 외식·호텔·급식업계용 식자재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K-푸드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달 7~15일 기간에는 태국 방콕을 찾았다. aT는 현지 대표 쇼핑몰인 시암디스커버리에 'K-스트리트푸드 팝업스토어'를 설치하고 한국 농식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라면·만두·떡볶이·핫도그 등 한국 대표 길거리 음식을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은 ▲시식·판매존 ▲한강라면 체험존 ▲고구마 홍보존 ▲소비자 체험존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고구마를 전략 홍보 품목으로 선정하고 현지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군고구마와 고구마튀김 등 다양한 시식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아울러 현지 수입·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바이어와 협력해 라면·떡볶이·만두 등에 대한 시식·판매 행사도 가졌다. '한강라면 체험존' 방문객들은 직접 라면을 고르고 즉석에서 조리해 먹는 경험을 했다.

룰렛 게임과 포토존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했다. 행사 참여자에게 판매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경품을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캔버스백을 증정하는 등 체험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현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했다. aT 관계자는 "개막 행사에 태국 아이돌 그룹 'LE7E L(레벨)'이 참석해 소비자들과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며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현지 인플루언서들도 체험 영상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온라인 홍보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축평원장, 'AI·데이터 혁신' 리더십 발휘

박수진 원장, SEA 최고경영자상
AX추진단·AI판정전환팀 통해
계란 등급판정 시간 최대 64% 단축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박수진 원장(오른쪽).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서비스 엑설런스 어워드(SEA) 공공부문 최고경영자(CEO)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 기여도·공로 등을 심사해 수여한다.

박 원장은 부임 첫해인 올해, 안정적인 기관 경영 및 내부 직원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기존 업무 방향은 지키되 'AI·데이터 혁신'을 새 축으로 삼았다. 이른바 '온고지신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취임 후 국정과제와 경영전략에 기반해 5대 성과목표 및 6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또 AI 기술로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AX(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작업) 로드맵을 수립·선포했다. 특히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AI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AX추진단과 AI판정전환팀을 통해 계란 등급판정 시간을 최대 64% 줄이는 성과를 냈다.

국민이 체감하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성과도 주요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박 원장은 재정경제부 고객만족도 평가 8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기반으로 리더십의 토대를 설계했다. 이러한 국민의견 환류 체계를 기반으로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2026년 농식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에서 수상했다.

박 원장은 "이번 수상은 AI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노력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협업해 경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주최한 2026년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렸다. 행사장에서는 시상식 외 'AI 시대, 축산유통 서비스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주제의 특별 세션도 운영했다.

축평원은 'AI 기반 축산물 품질평가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축산유통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현장 서비스 혁신 ▲데이터 연계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학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추진 중인 AX 전략과 서비스 혁신 과정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I로 '금강밀' 해독해 표준유전체 구축

농진청, AI에 유전변이 등 학습시켜
출수 특성 예측 기술 개발 성공

AI의 도움을 받아 곡식 품종의 개발·개량이 활기를 띠게 될 '디지털 육종' 시대가 다가왔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AI를 활용해 우리 밀에서 유전체 해독부터 형질 예측까지 이어지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교배 및 선별을 통한 품종 개발에 들이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 밀 연구는 국제밀유전체해독컨소시엄(IWGSC)이 구축한 중국 품종 '차이니즈 스프링'의 표준유전체를 활용해 왔다. 세계 밀 연구의 주요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 밀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과 품종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보였다.

농진청은 한계 보완을 위해 최신 염기서열 분석기술을 활용했다. 고유 밀 품종인 '금강밀'을 해독하고 세계적 수준 품질의 표준유전체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 국산 밀의 유전체를 기준으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확보한 유전정보를 활용해 '출수기(이삭 패는 시기) 형질 예측 모형'도 개발했다. 여기에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구축한 밀 핵심집단 614점 및 8년간의 출수기 조사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금강밀 표준유전체를 기준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이 구축한 핵심집단의 유전정보를 슈퍼컴퓨터로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약 6억 개의 유전변이를 확보했다. 또 유전변이와 출수기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해 출수기와 관련된 후보 유전변이 1만725개를 선발했다.

이후 선발된 유전변이와 출수기 자료를 AI에 학습시켜, 밀의 출수 특성을 예측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을 적용해 출수일을 예측한 결과, 실제 출수일과 단 하루 차를 보이며 정밀한 예측이 가능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층 산림복지 분야 경력전환 지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업무협약
대전 지역 시작으로 전국 확산 계획

노사발전재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숲해설가 양성 등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양 기관은 17일 중장년층의 산림복지 분야로의 경력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자격 취득자와 전문업 종사자 가운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이 60~70%에 달한다. 퇴직 후 자연 속에서 건강을 돌보며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나누는 가치 중심형 일자리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전환을 지원하고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양 기관은 산림복지 분야의 직무탐색과 현장 체험 등 기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도전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5대 핵심 협력과제를 추진한다. ▲중장년 대상 산림복지 일자리 정보 제공 ▲맞춤형 경력 설계 및 직무교육 ▲산업 수요 기반 일자리 발굴 및 기업 연계 ▲산림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일터 혁신 ▲중장년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 홍보와 행사 등이다.

두 기관은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고용활성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김정관, 수출 1조弗 앞두고 인천신항 방문

〈산업부 장관〉

"인천신항, 세계시장 향하는 관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출 길목을 방문했다. 올해 누계 수출이 이르면 이번 주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근로자들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김 장관은 17일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수출품이 세계로 향하는 현장을 살폈다.

그는 "수출 1조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라며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과 생산현장을 지켜 온 근로자, 우리 제품이 세계 곳곳에 도달하도록 뒷받침해 온 물류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천신항은 중고차·화장품 등 우리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우리 수출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했다.

연초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9636억6300만 달러로, 1조 달러까지 363억3700만 달러가 남았다. 관가에선 일평균 수출액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 또는 20일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